

---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지원사업」**

**최종 보고**

**(2021. 5 ~ 2022. 4)**

**-금융산업공익재단-**

---

**2022. 05.**

**녹색병원**

## 1 사업개요

### □ 사업 목적

- 경제적 어려움, 건강보험 가입 불가 등을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는 국내 거주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 접근성 강화
- 적기에 치료 및 검사를 통한 미등록 아동의 건강한 생활 보장
-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보장

### □ 지원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만 20세 미만 아동·청소년
  - 1) 입국 후 비자가 만료되어 미등록 체류 중
  - 2) 부모가 미등록 체류 상태에서 한국에서 출생
  - 3) 기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대상자
- 대상자 제출 서류
  - 여권 및 출입국사실증명서, 부모 중 1인의 여권 출생증명서(한국출생), 기타 미등록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지원범위

- 녹색병원 및 협력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예방접종, 검사, 치료비 등
- 1인당 200만원 범위 내 지원(급여, 비급여 포함)
  - ※ 치과와 한의원은 급여항목만 지원
- 지원한도 초과 시 자체심의 후 추가 지원 가능
- 의료비 총액 중 사업비 지원 80%, 의료기관 지원 20%(자체 할인, 외부 자원 연계 병행)

## ② 사업추진내용 : 미등록이주아동 지원체계 구축

### ○ 미등록이주 아동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협약

- 협약기관 : 서울, 인천, 대구, 대전, 경기, 강원 에 있는 의료기관 62곳
- 협약내용
  - 별도의 외국인 수가를 적용하지 않는 적정의료비 책정
  - 의료비 중 의료기관 20%, 금융산업공익재단 사업비 80% 지원
- 기대효과
  - 미등록 아동 지원 지역 확대
  - 1차 2차 의료기관 협력강화
  - 지역에 맞는 홍보 및 미등록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 협약식 사진 ]



○ **미등록 이주아동관련 복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상 아동 의뢰체계 마련**

: 미등록 아동과 관련 있는 복지 기관들과의 소통을 통한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체계 강화

[ 복지 네트워크 관련 사진 ]



**3 사업추진내용 : 대상아동발굴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및 언론 노출**

○ 한국다문화학회 추계 학술대회 '미등록 이주아동 인권실태와 사회복지 과제' 참석하여 의료비 지원 사업 소개 (2021년 11월 5일)



## ○ 홍보대사 위촉

- 미등록 아동의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는 계기 마련하고자 홍보대사 위촉
- 홍보대사 소개

- ① 이정은 배우 : 영화 <기생충>, <내가 죽던 날>, TV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미스터 션샤인>, 뮤지컬 <빨래> 등 수많은 공연작품에 출연
- ② 은유 작가 : 『있지만 없는 아이들』, 『쓰기의 말들』, 『글쓰기의 최전선』,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 『폭력과 존엄 사이』 등의 저자



## ○ 조직화 되어있지 않은 미등록이주아동 발굴을 위한 지면광고

(2월23일, 한겨레신문 4면)

# “아파도 이제 참지 말아요”

##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 의료지원사업

**지원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만20세 미만 아동·청소년

- 1) 입국 후 비자가 만료되어 미등록 체류 상태
- 2) 미등록 체류 상태의 부모가 한국에서 출산
- 3) 기타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대상자

**지원내용** 녹색병원 및 협력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1인당 200만원 한도)

**사업기간** ~ 2022년 4월 30일 까지

**신청방법** 제출서류(최종입국일 확인 가능한 여권, 출생증명서 사본, 신청서 등)를 준비하여 녹색병원(서울시 중랑구 소재) 사회복지팀으로 신청

문의: 녹색병원 정애향 사회복지사 02-490-2180  
홈페이지: www.greenhospital.co.kr (녹색나눔 게시판 참고)

녹색병원 홍보대사 이정은·배유,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지원사업 홍보대사 은유 작가

○ **미등록 아동 지원 언론소개 : SBS 8시 뉴스**

- ‘미등록 이주아동의 생활, 차별 등을 다룬 기획취재기사 2022년 1월 3일~4일 이틀간 방영됨 ( 본 사업으로 지원한 세명의 아동의 사례 소개 )
- 인터넷 후속 취재파일 기사를 통해 금융산업공익재단 후원사업 내용 홍보

현재는 녹색병원처럼 소수의 민간 병원·단체가 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녹색병원은 금융산업공익재단에서 기부받은 1억 원으로 오는 4월까지 미등록 이주 아동 및 청소년에게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녹색병원 사회복지팀 ☎ 02-490-2180.)



임상혁 녹색병원장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맹장 수술하면 한 20-30만 원 정도 돈을 본인 부담금이 나가는데, 이 아이들은 한 200-300만 원 나가거든요."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보험이 안 되는 만큼 이 지원금 200만 원도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 병원장은 이 사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8뉴스 사회

**"아파도 참아요"... 병원에 갈 수 없는 아이들**

김아영 기자 작성 2022.01.03 20:47 수정 2022.01.03 21:37 조회 1,730



## ○ 미등록 아동 지원 언론소개 : 한겨레신문

- 한겨레신문 2월23일 12면에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지원' 기사

# '의료사각' 미등록 이주아동들 녹색병원 보호 울타리 안으로

### 건보 가입 못하는 아동·청소년에 외래·입원·응급실·예방접종 등 4월까지 최대 200만원 의료지원

지난해 8월 한국에서 태어난 몽골 국적의 미등록 이주아동 7은 뇌수막염·비(B)형간염 등 영유아가 필수적으로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존에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이주아동이라도 지역 보건소에서 관리번호를 받은 뒤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었는데, 코로나19 대응으로 보건소의 여러 업무가 중단되며 의료사각지대가 생기면서다. 이대로라면 일반 병원에서 수만~수십만원의 접종료를 부담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주민 지원단체가 서울 중랑구에 있는 녹색병원으로 연계하면서 아이는 시기마다 필수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녹색병원은 이처럼 건강보험 가입 불가,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에게 최대 2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4월까지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사업 대상자는 △입국 뒤 비자가 만료돼 미등록

체류 중 △부모가 미등록 체류 상태에서 한국에서 출생 △기타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20살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다. 녹색병원을 포함해 전국 62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1인당 20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대상자들은 외래·입원·응급실을 포함한 진단과 치료, 예방접종, 종합건강검진, 의료통역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몽골 국적의 중도입국 아동 L(13)도 해당 지원사업의 혜택을 봤다. L은 지난해 지역아동센터에서 놀다 오른쪽 가운데손가락이 골절됐다. 인근 병원에서 급하게 처치를 받았지만, 건강보험 미가입자라서 부모가 검사비 등 병원비를 고스란히 내야 했다. 다행히 지역아동센터의 연계로 녹색병원에서 무료로 외래 치료를 받아 회복했다. L의 부모와 기관 담당자는 "만약 지원이 없었다면 적극적인 치료를 주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 병원 단위에서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에 나서게 된 건 이들을 위한 건강권 보장 환경이 열악한 탓이다.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한국은 모든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지만,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등을 적용받지 못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은 위협받고 있다.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신윤정 연구위원의 '미등록 이주아동 보건복지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보고서'(2020)를 보면, 미등록 이주민 100명 중 32명이 '최근 1년간 자녀가 병원·의원 진료에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대부분 '진료비 부담'(21명)을 이유로 꼽았다.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은 최소 5200명에서 많게는 2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녹색병원에서 관련 지원을 받으려면, 입국 뒤 비자가 만료돼 미등록 체류 중인 아동·청소년은 최종 입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아동의 여권 사본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 가운데 하나를 내면 된다. 부모가 미등록 체류 상태에서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청소년은 부모 한명의 여권 사본과 출생증명서 사본을 모두 내야 한다. 녹색병원 누리집(greenhospital.co.kr) 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뒤 병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금융산업공익재단의 후원을 받아 지난해 5월부터 시작돼 오는 4월 끝난다. 녹색병원 사회복지팀은 "현재까지 아동·청소년 180여명이 530여차례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해미 기자 ham@hani.co.kr

#### 4 의료비지원 세부사항

- 신규 인원 (실인원:명)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실인원 계
1	18	16	12	5	14	90	20	8	20	9	2	215

- 신규 지원인원의 유입은 기관의뢰보다 개별적으로 신청한 경우가 더 많았으며, 커뮤니티 등을 통한 홍보자료를 보고 알게 되었거나 의료지원을 받고 있는 지인들의 권유로 알게 된 경우가 많음
- 지속적으로 신규 대상인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 됨

- 국적 별 지원아동 (부모기준) (실인원:명)

몽골	베트남	필리핀	이집트	우간다	태국	인도네 시아	파키 스탄	라이 베리아	실인원계
157	29	19	3	3	1	1	1	1	215

- 주 사업수행기관인 녹색병원 인근에 몽골 국적 부모가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SNS를 통한 커뮤니티의 활성화, 재한 몽골 학교를 통한 대상자 의뢰 등의 이유로 부모의 몽골국적 아동의 비율이 높음
- 다국적 아동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 포스터를 번역(베트남어)하여 홍보에 활용하고 있음.
-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부모를 위해 중랑구 가족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생활통역단의 봉사활동을 연계함.  
: 필요시 중랑구 가족센터 ‘중랑무지개 생활동역서비스 연계’하여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생활통역단 자원봉사 활동을 연계함. (몽골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 출생지

(실인원:명)

국내출생	중도 입국	실인원계
162	53	215

· 지원 아동들의 대부분은 미등록체류 부모의 자녀로 한국에서 출생한 아동들이며, 출생등록 등이 전혀 되지 않아 통계적 파악이 되지 않음. 미등록 이주 아동들은 출생부터 혹은 아동기 시기부터 한국에서 거주하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하게 됨.

- 치료형태

(연인원:명)

입원	외래	연인원 계
5	781	786

· 치료가 필요한 시기에 꾸준히 병원이용을 통해 예방, 검사, 상담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의료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이 필요함

· 입원치료 지원 사례 중 발열 및 염증 치료 등으로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시기에 발열환자에 대한 입원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지원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외래치료를 다니던 병원에서 적절하게 입원치료로 연결되어 아동의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됨.

또한, 급성 충수염 수술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 1인당 지원한도(200만원)를 초과하여 '미등록아동 의료비 초과 심의'를 거쳐 지원 함

· 지원아동들이 필요시 꾸준히 병원을 이용하고 있어 외래치료 건수가 높게 나타남. 이는 아동의 건강상태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적기에 아동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음을 보여줌

- 지원과 (중복포함)

(연인원:명)

소아 과	내과	외과	정형 외과	피부	산부 인과	신경 외과	가정 의학	치과	응급	약국	계
641	25	19	9	5	67	1	16	10	3	22	818

- 소아과, 내과를 통해 지속적으로 아동의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점검과 상담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여성 청소년들의 자궁경부암백신 접종으로 인한 산부인과 진료 건이 높아짐.

- 질환별 분류 (중복포함)

(연인원:명)

예방 접종 항체검사 포함	감기 비염,결막 염 등	장염 변비 등	피부 질환	총치 치료	골절, 타박상	영유아 검진	맹장	기타 건강상담 및 검사 구내염,비만 등	계
426	241	30	43	9	15	18	1	17	800

· 코로나19로 미등록 아동도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이 가능했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업무가 기간과 대책 마련 없이 중단 됨. 접종 1회당 비용이 발생하고 성장 개월 수 마다 접종이 필요한 상황으로 경제적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미 접종 하는 경우가 많았음. 본 지원으로 아동의 성장발달에 필수적인 접종이 이루어 질 수 있었고, 공적자원의 공백을 대체 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 함.

·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겨울철을 맞이하여 독감예방접종에 대한 수요도 높아 아동의 감염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짐.

· 2022년도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관련지침이 변경됨(1월)에 따라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B형간염 예방접종 등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무료접종이 가능하도록 지침, 시스템 개선 됨. 그러나 일선 병원들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낮아 접종이 어려운 경우가 계속 발생하기도 함. 미등록아동에 대한 권리적 건강권의 장벽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외에도 계절적 특성에 따라 독감예방접종,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대한 수요가 높음

## 5 성과

### ○ 미등록이주학생에 대한 의료지원체계 마련

뉴스투데이 1월25일 기사

#### 미등록 이주학생 의료지원 사업 본격화, 금융산업공익재단-서울시교육청-녹색병원 MOU

유한일 기자 입력 : 2022.01.25 18:20 | 수정 : 2022.01.25 18:20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가운데), 금융산업공익재단 김용만 이사(왼쪽), 녹색병원 임상학원장(오른쪽)이 25일 미등록이주학생 의료비 지원사업 협약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산업공익재단]

## ○ **미등록이주아동에 대한 건강권 보장의식 확산 및 사회적 자료제공**

- 한국에서 출생을 한 아동의 부모들은 적절한 건강상담 및 관리를 받아 본 경험이 부족하여 질병에 대해 임의로 판단하여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음. 병원 이용 및 치료과정을 통해 아동에 대한 질병관리 경험을 제공 하여 장기적으로 아동의 양육 태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현재 미등록 아동에 대한 인구사회적 통계가 전무 한 상황이며, 건강과 관련된 자료도 거의 없음. 적기에 치료 받을 수 있는 건강권이 보장 될 수 있는 토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함

## ○ **코로나19로 공적자원의 공백기에 꼭 필요한 사회 안전망역할**

- 미등록 거주민의 자녀로서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한 상황, 특히 코로나19라는 전에 없는 감염병 유행의 상황에서 대안 없이 작동을 멈춘 공공의료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방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으며, 이는 건강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혁신적인 가치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됨.